

“지역 주력산업, 美 관세 재인상 선제 대응해야”

광주경총, 긴급 운전자금·수출보험 지원 등 제안
자동차·부품 타격…회학·철강 경쟁력 저하 우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해 광주·전남은 자동차·부품과 일부 제약·정밀화학 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경총회(회장 양진석)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세 재인상이 현실화 될 경우 지역 주력 산업이 직접 영향을 받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광주경총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국의 한국산 재화 수입 규모는 약 1316억달러로 이 가운데 자동차·부품과 화학·의약품 비중이 크다. 관세 인상 폭이 10%p에 달하는 만큼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광주는 수출 비중에서 운송장비(완성차·부품)와 반도체, 기계가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최근에도 운송장비와 기계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아 광주 공장과 주변 1·2차 부품사의 미국항 물량에 추가 관세가 붙을 경우 현지 가격 인상이나 마진 축소로 이어져 단가 인하 압력과 물량 조정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 했다.

특히 타이어와 가전 등 일부 품목은 이미 수출 감소 흐름을 보이고 있어 미국항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관세 인상이 장기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 광주경총은 이 경우 투자 보류와 인력 조정 압력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고 내

전남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전남은 석유·화학·철강·조선이 주력 산업이지만 최근 자동차와 운송장비 비중이 빠르게 확대된 구조여서 자동차·부품의 대미 수출 물량은 관세 재인상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됐다.

여수·광양을 중심으로 한 석유·기초화학 산업은 직접적인 관세 대상은 아니지만 미국과 글로벌 제조업 품목이 본격화될 경우 회학·철강 수요 감소와 단가 하락으로 기동률 조정과 투자 연기, 협력업체 물량 축소 등 간접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제약·바이오와 정밀화학 기업 가운데 미국항 비중이 높은 업체들은 바이어가 유

럽이나 미국 내 생산으로 대체할 유인이 커져 매출 감소와 함께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여력 축소가 우려된다는 전망도 나왔다.

광주경총은 관세 재인상이 지역 경제와 고용에 미칠 파급 효과도 주목했다.

광주·전남 수출은 최근 운송장비와 기계 증가에 힘입어 흑자를 유지해 왔지만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이 꺾일 경우 무역 흑자 축소와 함께 지역 제조업 생산과 고용이 동시에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완성차 업체가 미국 현지 생산을 확대하

거나 멕시코·미국 남부 등으로 물량을 이 전할 경우 광주 부품 클러스터와 전남 소재·부품 기업의 주문 감소로 이어져 이를 바 ‘낙수형’ 고용 충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꼽혔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미국항 비중이 높은 자동차·부품·제약·정밀화학 기업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긴급 운전자금과 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며 “증장기적으로는 광주는 전기차·차량주행, 전남은 이차전지·첨단소재·정밀화학 등으로 산업 구조를 고도화해 관세가 불어도 쉽게 대체하기 어려운 고부가 공급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대용 기자 sdw091@gwangnam.co.kr

순천시, 전남신보에 4억원 특별 출연

1억원 증액…소상공인 1인당 연간 150만원 이자절감

전남신융보증재단은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어려운 경영환경에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순천시와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순천시는 올해 4억원으로 전년 대비 1억원을 증액해 특별출연을 확대했다.

전남신보는 이를 바탕으로 총 4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순천시의 특별출연금 확대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보증은 순천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순천시 자금과 연계해 연 5%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1인당 연간 150만원의 이자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강근 이사장은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과 내수수요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순천시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부담이 덜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사업을 운영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재용 기자 djawodyd0316@



광주 라이즈 성과 공유회 5일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 라이즈(RISE) 성과공유회에서 광주 폴리텍대학 학생들이 만든 협동로봇이 커피 제조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전남농협, 공공형 계절근로자 기숙사 점검

애로사항·제도 개선 과제 공유…영농인력난 해소 앞장

농협 전남본부는 5일 전남서남부지사 농협이 운영 중인 공공형 계절근로자 기숙사를 찾아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인건비 상승 등 복합적인 여건 속에서 농업 생산 기반을 지키기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의 실제 운영 상황을 살피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기숙사 운영비 부담을 비롯해 사회보험 적용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 생활 편의시설 확충 필요성, 계절근로자의 의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 보완 요구 등이 주요 과제로 제기됐다.

이 기숙사는 지난 2024년 7000여만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농협중앙회의 19억원 규모 무이자 자금 지원 등에 힘입어 적자 운영에서 벗어났다. 농협이 재정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공공형 계절근로자 기숙사 운영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단기적인 손익을 넘어 능존 인력난 해소와 지역 농업 유지라는 공익적 역할을

실천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농촌 인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농협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지자체와 농협, 농업인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협력할 때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훤칠 놓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 전남본부는 지난해 기준 15개 농협이 참여해 370여명의 계절근로자를 투입, 총 5만4400여명에 달하는 인력 지원 효과를 거뒀다. 올해는 5개 농협이 추가로 참여해 총 20개 농협에서 620여 명의 계절근로자가 투입될 예정으로, 10만명 이상의 인력 지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지난달 지역별 영농 휴기기에 다른 지역의 계절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20개 농협 간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양만권 입주기업 성장세 ‘눈에 띄네’

매출 18조9930억원 6.6% ↑·수출 1조2591억원 25.6% ↑

투자 늘었지만 평균 못미쳐…“앵커기업 유효 등 필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들이 수출액 1조2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투자 유치규모는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경제청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간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2024년 기준 5인 이상 사업체 실태조사를 한 결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총 매출액이 18조 9930억원, 수출액은 1조2591억원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매출액은 전년도인 2023년 17조8254억원보다 6.6% 증가한 수출액은 전년 1조22억원에 비해 25.6%가 각각 증가했다. 사업체 수도 739개로 전년 702개에 비해 5.3%가 늘었다.

특히 총 매출액은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 평균 증가율 2.0%를 3배, 수출액은 전국 평균 증가율 10.3%를 상회하는 수치로, 광양만권이 지속 성장 잠재력을 갖춘 투자 유치지역이 확인됐다.

투자 유치액과 고용 지표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투자는 2024년 1조1233억원으로 전년

1조233억원에 비해 9.8%, 고용인원은 2만 1662명으로 전년에 비해 4.4%가 각각 늘었다.

하지만 투자 실적의 경우 전국 평균 증가율 14.4%보다 낮아 신산업 중심의 대규모 앵커기업 유치 등 투자유치전략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구충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투자유지 전략을 마련하겠다”며 “우주·항공 산업 등 핵심 미래성장산업과 세종 신단 이차전지 소재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해 국내외 우량기업 유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양김귀진 기자 lkjin@gwangnam.co.kr

순천광양축협, ‘농업소득 증대 우수사무소’ 선정

축산물유통센터 신축 등
고품질 축산 유통체계 구축

순천광양축협은 최근 농협 전남본부에서 열린 정례조회에서 ‘2025년 농업소득 증대 추진 우수사무소’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농업소득 증대 추진 우수사무소’는 농협중앙회가 1년간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한 농축협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상하는 제도로, 2025년에는 전국에서 총 5개 농축협이 선정됐다. 전남에서는 순천광양축협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순천광양축협은 노후화된 기존 축산물 유통시설을 신축·이전해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유통체계를 구축했으며, 가



2025년 농업소득 증대 우수사무소 선정식 5일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농업소득 증대 우수사무소 선정식에서 순천광양축협이 우수사무소로 선정되는 기념사진.

축분뇨 처리 방식 다각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고체연료 생산시설 설치 등 농업소득 증대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점

을 인정받아 이번 우수사무소에 이름을 올렸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도, 어린이 과일간식 공급업체 12일까지 공모

전남도가 성장기 어린이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지역 과수 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2026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사업’ 공급업체를 오는 1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전남도는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머거리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업체를 직접 선정할 방침이다. 공모 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소분업’이나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업체 가운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갖추고, 생분해플라스틱 등 100%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는 업체다.

또한 전남에서 생산한 친환경 인증 또는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 과정을 활용해 캠퍼와·파우치 등 아이들이 먹기 편한 신선편이 형태(1회 120~150g)로 제조하고, 냉장 유통(콜드체인) 시스템을 통해 학교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할 역량을 갖춰야 한다.

참여를 바라는 업체는 12일까지 전남도 식량원예과에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남도는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등을 거쳐 3월까지 최종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신학기부터 본격적인 과일간식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연다
지역 우수 농산물 32종 판매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광주시가 전남과 상생·협력을 위해 인접한 7개 시군의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연다.

광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오는 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청 1층 시민홀에서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직거래장터는 광주전남 통합 추진에 따른 지역 간 상생·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근 시·군의 우수 농특산물을 소개·판매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터에는 광주시와 전남 7개 시·군(나주시·순천·광양·장성·담양·함평·고흥)이 참여해 총 32종의 농특산물을 선보인다.

시는 이번 장터가 통합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역 농가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영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광주·전남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통합의 의미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직거래장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간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과 지역경제에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aT, 전략작물 경쟁력 강화

제품화 사업자 19일까지 모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국산 및 전략작물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전략작물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 사업자를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전략작물 활용 제품을 개발·판매하는 식품제조업체, 외식업체와 농업법인 등이다. 올해부터는 유통업체 협력 컨소시엄 분야를 신설, 공모 분야를 다양화했다. 자자체, 유통업체, 식품 외제조 분야에서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는 밀, 콩의 패키지 분야 예산을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90억원 가량 확보해 지원한다. 전년 대비 16억5000만원, 국산콩 예산은 27억 원 증가했다.

지원은 제품개발, 포장, 시제품 생산, 흥보·판촉, 수출 등 전 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단일 업체가 신청하는 일반형은 최대 3억원, 유통업체 컨소시엄 등 기획형은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된다. 국비 지원율은 품목별로 상이하며 밀·콩(50%), 가루쌀(80%)이다.

aT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국산 밀·콩과 가루쌀을 많이 소비해야 농가는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며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역량 있는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신규 수요 발굴과 신시장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